유희열차관 주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최

유희열(柳熙烈) 과학기술부차관은 7월 23일(월) 오후(16:00) 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산·학·연 전문가들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수립한 [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]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원자력의 발전(發電)과 비발전(非發電) 분야의 균형 있는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, 비발전(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) 분야 이용 진흥을 위한 산업체, 연구기관,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, 아울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관련 기술 개발, 인력 양성과 산업 활성화,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.

참고로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제251차 원자력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에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2010년까지 發電 대비 非發電 분야의 비중을 현재 9:1에서 7:3 수준으로 증대시킬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, 금년 중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확대하고,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[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종합계획]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 (문의처 : (02)503-7647, 7648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)

원자력법 시행령개정

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원자력법(법률 제6 3 5 4호)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7월 17일 발표했다.

협회는 동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구대비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7월 23일 회원사에 제공하였으며 추후 개정된 사항을 인쇄하여 배포토록 하여 관련업무에 원활을 도모할 계획이다.

•••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의 주요골자 •••

1.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의 표준설계 인가절차 등을 정함(제24조 내지 제26조)
2.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기기, 부품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함(29조)
3.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날로 부터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 함(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)
4. 원자력사업자를 대신하여 방사성오염의 제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대행자는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사를 받음(199조)
5. 평소 방사선안전관리가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사용자에게 정기검사를 면제할수 있도록 함(제199조의2)
6. 수입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설계승인을 받도록 함(제200조의4)
7.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심의회를 구성·운영함(제302조의3 및 제302조의4)

방사성폐액 수거에 대한 안내

한국수력원자력(주)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RI이용기관에서 위탁폐기의뢰하는 방사성폐액을 인수·저장관리하고 있으나, 현재 저장용량부족으로 인수업무를 잠정중단중에 있다. 기술원에서는 방사성폐액 저장용량확장 및 유기폐액 소각설비를 마련하고 있어 2002년초부터는 방사성폐액 인수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방사성폐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폐액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액 수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유기폐액과 무기폐액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에 절저히 분리하여 담을 것
2. 유기폐액과 무기폐액이 혼합되어 균일상으로 된 경우(예 : LSC용액)에는 혼합비율을 명시할 것
3. 폐액용기내에는 폐액이외의 고체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4. 각 용기내에 들어있는 폐액의 종류(제품명)와 수량을 자세히 명시할 것
5. 각 용기내에 들어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및 수량(농도)를 명시할 것

상기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자부 고시 1999-102호 「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방사성폐액 분리수거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담당자는 밝혔다. (문의처 : 042-868-0273 원자력환경기술원 이상우)

한국원자력연구소-동화약품

간암 주사치료제 국내 '신약3호 곧 시판'

간암을 수술하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 주사제로 치료하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.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동화약품㈜ 공동 연구팀(책임자 박경배 · 朴敬培)은 방사성동위원소홀뮴-166과 생체에 무해한 천연의 키토산 고분자물질 화합물로 이루어진 간암 치료제를 개발, 국내 신약 3호(국내 방사성 의약품 신약1호) 승인을 받아 곧 시판할 예정이라고 7월 6일 밝혔다.

이 치료제는 초기 간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